

학종 '자기소개 · 교사추천서' 폐지 검토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발표 후속조치 통합사회 · 통합과학 수능도입 여부 등도 검토

교육부가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방식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 · 교사추천서 폐지 여부와 올해 고 1 교육과정에 도입된 통합사회 · 통합과학 수능 도입 여부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빠진 사항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4일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결정 사항과 권고를 존중한다"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부 결정을 통보한 사항에 대해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 · 서면조사 ·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 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기술적 · 전문적 성격이 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사항과 현행 수시 · 정시 분리 체계 유지 권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모두 교육부에 결정권을 넘겼다. 그러면서 학종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통합

사회 · 통합과학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종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대학은 수험생의 교과 성적을 비롯해 수상경력, 자격증, 동아리 활동 등 봉사활동, 진로활동 같은 비교과 항목,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면접,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종합해 합격을 결정하는데,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부모의 직업 등을 드러내는 문장을 넣거나 특목고 · 외고같은 고교 유형을 적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라 올해 고 1에 처음 도입된 통합사회 · 통합과학을 수능과목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간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문과생이 과학을 이과생이 사회를 공부하지 않는 현행 '문 · 이과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도 도입됐다. 그러나 문과생에게 과학을 이과생에게 사회를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수업 · 평가 방식까지 모두 달라져 수능과목 도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별 교사 개선, 수능과 IBS 교재 연계 등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 빠진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와 부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인 참여형 속의 공론화,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속려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대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전북권역 대학 연합 취업캠프'를 열었다

전주대, 기업과 함께하는 취업캠프 열어 원광대 - 우석대 대학일자리센터 공동 주관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전북권역 대학 연합 취업캠프'를 열었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박근철)가 총괄하고 원광대-우석대 대학일자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권역 대학생(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63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도내 청년 간 상호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전주고용센터의 정부청년고용정책과 지역 산업 및 채용 동향 등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직무분석 및 실습 시간에는 청년들의 취업 희망 기업과 지역기업을 분석하여 이색 홍보물 만들

기아 개인의 취업 전략 로드맵을 작성했다.

특히 하림, 대우전자부품(주), 페이퍼코리아(주), 한국전력공사, 제이티에프, 전북테크노파크 총 6개사가 참여한 설명회와 멘토링 시간에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우리 청년들이 알지 못했던 도내 기업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무엇보다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갈 길이 어려워 방황하던 시점에 새로운 길을 보여줘주어 정말 좋은 캠프였다."라고 밝혔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장하여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영향력 있는 지역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4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뒤 지난 달 21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성장잠재력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일부 업종과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5명 이상 모든 중소기업 지원한다.

30명 미만 기업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100명 이상 기업은 3명의 청년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가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된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만큼 도내 많은 기업이 조기에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반

교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 전주대 인권센터 개소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접수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주대 인권센터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인권센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인권위원회와 성희롱 · 성폭력 상담소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인권침해 대응과 조사 · 성희롱 및 성폭력 침해 방지와 이와 관련한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권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

하게 된다. 전담 연구 교수 1명을 지정하여 상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가해자의 재발방지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한다. 박근철 인권센터장은 "구성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 보호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2차 피

해와 후유증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센터는 올바른 인권 의식과 성 인식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학생과 교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도 실시 운영하여 구성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호인 총장은 "새롭게 인권센터를 개소하여 학교 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내 구성원의 왜곡된 성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북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1만6,000여명에게 가방 안전덮개를 제작 · 보급했다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가방 안전덮개 보급

전북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1만6,000여명에게 가방 안전덮개를 제작 · 보급했다.

가방 안전덮개는 차량 운전자들이 학생들을 쉽게 인지하여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제작한 것이다.

가방 안전덮개에는 식별 효과가 뛰어난 형광원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숫자 '30'이 표시되어 있으며, 비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도 갖췄

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넣어 아이들이 스스로 가방 안전덮개를 착용하도록 제작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가방

안전덮개 착용으로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이 확신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실시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나누기 행사에서 청렴실천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정미화 청렴전문강사로 부터 해설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공명해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소개하며, 공직자 스스로 청렴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및 윤리거처에 관한 행동강령 등에 대해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적극적인 청렴정책 추진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등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